

- I. 서론
- II. 국민 여가실태 및 전망
- III. 서해안 자연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 IV. 결론

I. 서론

서해안의 지리적 여건은 생태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으로 1만 2천km에 달하는 해안선, 세계 5대 갯벌자원, 3천2백 여개의 도서, 세계 주 항로에 위치한 항만, 연 1백조 원의 해양생태가치 등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남한의 육지면적 대비 해안선길이는 약 129배로 일본 87, 영국 52, 미국 6배 등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해안은 지형 및 지세, 기상, 해상 등 그 자원특성이 달라 각 해안별 관광개발을 특성 있게 개발할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관광 행태 변화를 보면 개인 내지 소규모화, 장거리화, 동적 성향, 개성화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해안에 대한 관심과 바다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도구가 많이 발달하고 보급되고 있어서 해안관광에 대한 여건조성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외를 막론하고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생태관광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다. 유엔은 생태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 7월 유엔총회에서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한 바 있으며(Resolution, 1998/40),

< 1 >



* 공주대학교 교수

국내에서도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생태관광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특정계층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을 위한 천연자원을 갖추고 있는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여가실태, 여가행태에 알맞은 활용방안으로 서해안지역의 자연자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서해안 지역은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당진군으로 한정한다.

II. 국민 여가실태 및 전망

1. 국민여가실태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 까지 13일간 통계청이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10세 이상 전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필수활동을 위해 10시간 18분(43%), 일하는 데 8시간 42분(36%), 여가활동에 5시간(21%)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9).이중 여가시간의 활용은 T.V. 신문 등 대중매체의 이용이 2시간 23분으로 가장 많다.

< -1> 가

단위(시간 : 분)

											가				
								가				(T.V.)			
24:00	10:18	7:47	1:33	0:58	8:42	3:43	1:56	1:28	1:35	5:00	2:23	0:53	0:52	0:52	

자료: 통계청(1999)

2000년에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서도, 여전히 여가시간활용이 TV시청이나 휴식, 수면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 시청이나 휴식 이외에 능동적인 형태의 여가활동으로는 무엇보다 여행의 비율이 높다.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13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2001 국민여행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1년 한해동안 국내여행에 나섰던 전체 국민은 3,600만 명, 관광으로 지출한 총 비용은 12조 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여행자들은 당일 및 1박2일 이상의 여행을 합쳐 1인당 8.73일 동안 국내 관광을 했고, 1인당 6.05회 여행을 떠났다. 경비는 여행자 1인당 연간 33만2천5백40원을 쓴 것이다.

1999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비교하면 2001년에는 여행자 1인당 여행 일수는 1.15일, 비용은 8만7천7백90원이 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도별 관광참여율을 보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국민관광여행총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감소를 보여 1999년에는 약 2억 7천 2백만 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약 3억 2천 8백만 명 증가세를 보였다. 앞으로 여행참여율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2. 국민여가전망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여가생활에 전반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이 확보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기존의 관람형에서 체제형의 시간소비형 여가패턴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여행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당일여행보다는 1박 2일 이상의 숙박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야외휴양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적 미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각종 체험형, 모험형 여행과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의 특수화된 여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강미희, 2001).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래프팅, 암벽타기, 트레킹(trekking), 번지점프, 산악자전거 같은 모험여행을 비롯해 다양한 해양스포츠의 인기도 20-30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대될 것이다. 반면 중장년층은 자연에 대한 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촌관광이나 주말농장을 중심으로 한 야외휴양수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의 자연학습과 현장체험을 위한 수요도 발생할 것이다.

휴식을 취하거나 먹거리 혹은 볼거리를 즐기고 동반자들의 친목을 다지는 욕구에서 나아가 지적인 여가를 보내려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가를 통한 학습화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즉 사람들의 지적 실현 욕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주제의 소규모 동호회를 중심으로 문화형, 학습형 관광의 수요 또한 증대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욕구는 생태관광이나 문화관광 같은 교육적 요소가 가미된 여행에서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로 한국휴양학회에서 2002년에 실시한 전국 5대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행중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 “여유롭게 쉬기” 외에 “자연관찰, 문화/역사체험 여행”등의 수요 또한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행중 행동양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도 산이나 바다 등 자연지역이 주요 여행대상지가 되어왔으나 그곳의 자연이 배경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배움과 느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자연지역에 대한 방문수요는 급증하고 있고, 특히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UN이 2002년을 ‘산의 해’,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한 데서도 자연에 갖는 인간이 관심이 얼마나 증대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생태관광은 관광산업 내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Ziffer, 1989)하였으며, 전체 국제 관광객 수에서 생태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만 이 분야의 거듭되는 성장은 상업적·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Higgins, 1996).

< -2>

	663	35.4
	313	16.7
/	284	15.1
,	220	11.7
	158	8.4
	146	7.8
	88	4.7
	3	0.2
	1,875	100

주 : 복수응답이므로 빈도가 1,000을 초과함.

출처 : 한국공원휴양학회(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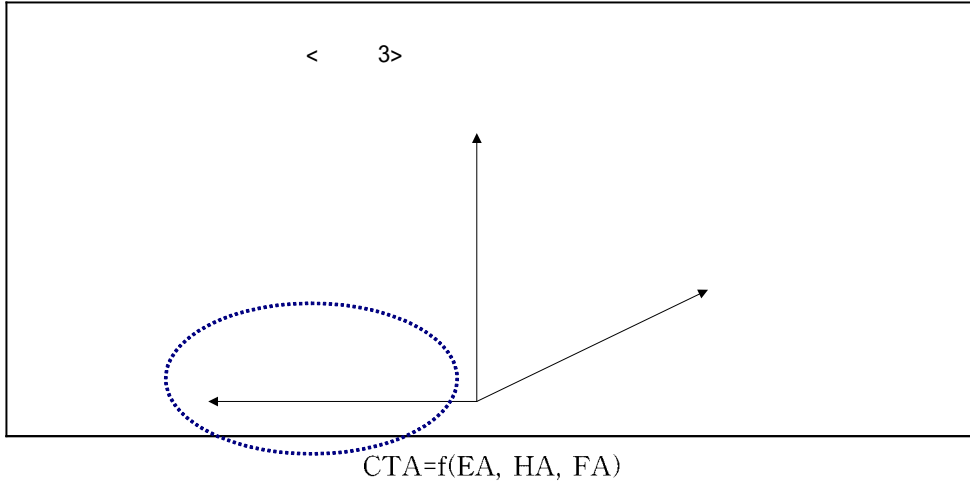
Ⅲ. 서해안 자연자원의 현황과 활용방안

1. 서해안 자연자원의 현황

충청남도의 자연관광자원을 살펴보면, 자연공원은 6개소, 자연휴양림은 12개소에 이르고있어 전국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문관광자원은 국가지정문화재가 194개, 지방지정문화재가 314개, 문화재 자료 283개 등 총 791개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전통민속마을은 1개소, 농촌휴양자원으로는 휴양단지 2개소, 관광농원 52개소, 민박마을 25개소 등 총 73개가 입지하고 있어 지역의 관광자원의 성향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충남지역의 지역적, 자연환경적, 역사적 여건을 고찰하여보면 충남관광의 매력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역사문화 매력, 지역축제매력, 생태관광의 매력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매력점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각각의 매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CTA=충남 관광매력(Chungnam tourism attraction)

EA=생태관광매력(Ecotourism attraction)

FA=지역축제관광매력(Festival(event) tourism attraction)

HA=역사문화관광매력(History & Culture tourism attraction)

서해안의 자연자원의 종류와 규모는 다양하고 크다.¹⁾

2. 서해안 자연자원의 활용 방안

1) 서해안 자연자원 현황

1. 지정 문화재

◆ 태안군 ◆

- ♣安眠島의모감주나무群落(천연기념물 138호) ♣卵島팽이갈매기繁殖地(천연기념물 334호)
- ♣泰安薪斗里海岸砂丘(천연기념물 431호) ♣瑞山安眠內波水島(시도기념물 64호)
- ♣泰安興住寺은행나무(시도기념물 156호)

◆ 보령시 ◆

- ♣외연도의상록수림(천연기념물 136호) ♣보령장현리귀학송(시도기념물 159호)

◆ 서천군 ◆

- ♣마량리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169호) ♣서천신송리의곰솔(천연기념물 353호)

◆ 예산군 ◆

- ♣예산대흥향교은행나무(시도기념물 160호)

◆ 당진군 ◆

- ♣당진송산면의회화나무(천연기념물 317호) ♣면천은행나무(시도기념물 82호)

2. 충남 지역의 갯벌 현황

충청남도의 갯벌현황 - 이 지역의 갯벌은 태안군의 안면도를 중심으로 해안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로림만 내측의 소규모 만에는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 천수만의 입구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측 수로를 따라 올라가면 내측 깊숙히 남북방향으로 독립된 갯벌이 분포되어 있다.

보령서천지역은 해안을 따라 갯벌이 고르게 발달하여 있으며, 비인만에서 장항항 부근까지 비교적 넓은 갯벌이 해안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군산장항 외측해역의 유부도, 개야도 주변에 비교적 넓게 독립된 갯벌이 분포되어 있으며, 내측의 소규모 갯벌은 금강댐의 영향으로 갯벌 및 사주의 이동이 나타난다.

충청남도의 사군별 갯벌면적은 <표>와 같다.

<표> 충청남도의 갯벌분포현황

(단위: km²)

서해안의 자연자원의 종류와 규모는 다양하고, 또한 이들 자원을 인문적인 자원과 연계한 활용방안의 검토도 이루어져야하나 본고에서는 생태관광의 측면에서 그 이념을 살펴보면

	28.4	9.3
	67.9	22.3
	102.1	33.6
	9.8	3.2
	32.7	10.8
	63.3	20.8
	304.4	100

3. 사구

■태안반도의 사구 분포

전국적으로 약 150여개의 사구가 분포되어 있고, 그중 태안해안 국립공원내 크고 작은 사구가 총 23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태안해안사구의 전체 면적은 5km²로 이중 100,000m²이상 규모 사구로는학암포, 구례포, 만리포, 어은돌, 몽산포, 청포대, 마검포, 백사장, 삼봉, 기지포, 바람아래가 있습니다.

4. 국도립(군립)공원

- ▶ 가야산 (서산시) ▶ 팔봉산 (서산시) ▶ 태안해안국립공원 (태안군)
- ▶ 오서산 (홍성군) ▶ 용봉산 (홍성군) ▶ 덕산도립공원 (예산군)

5. 계곡

- ▶ 화장골계곡 ▶ 명대골계곡 ▶ 심연동계곡 (보령시)

6. 호수.등

- ▶ 냉풍욕장 (보령시) ▶ 삼교호 (당진군)

7. 해수욕장

■태안군

가의도 / 신진도 / 두여해수욕장 / 학암포해수욕장 / 천리포해수욕장 / 이원반도 / 꽃지해수욕장 / 파도리해수욕장 / 방포해수욕장 / 몽산포해수욕장 / 삼봉해수욕장 / 안면도(安眠島) / 갈음이 해수욕장 / 구례포 해변 / 만리포해수욕장 / 연포 해수욕장 / 의항 해수욕장 / 청포대해수욕장 / 기지포해수욕장 / 꾸지나무굴 수욕장 / 달산포해수욕장 / 바람아래해수욕장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 삽시도 / 오천면 고대도 / 오천면 효자도 / 원산도 / 죽도 / 무창포해수욕장 / 외연도 / 장고도 / 호도해수욕장

■서산시 - 고파도 ■서천군 - 춘장대 해수욕장

■홍성군 - 죽도 ■당진군 - 난지도해수욕장

8. 자연휴양림.수목원

- ▶ 안면도자연휴양림 / 천리포수목원 / 청산 수목원 (태안군) ▶ 희리산자연휴양림 (서천군) ▶ 용봉자연휴양림 (홍성군) ▶ 성주산자연휴양림 (보령시)

9. 자연생태관광지

- ▶ 왜목마을 해돋이 / 대호방조제(철새도래지) (당진군) ▶ 천수만(철새도래지) (서산시)
- ▶ 마량포 해돋이 / 금강하구둑 / 마량리 동백나무숲 / 신정리 갈대밭 (서천군)

<해오름>

-황도 해오름 -학암포 안포 해넘이 -몽대포구의 해넘이 -꽃지해변의 해넘이(할미, 할아비 바위의 낙조)

10 .자연자원 이용 축제

■ 보령시

- ▶ 보령 머드축제 / 무창포 대하전어 대잔치

■ 서산시

간월도 굴부르기 군왕제 / 서산 벼대가리 놀이 / 동암리노작놀이 / 팔봉산 감자축제 / 부석 검은여태평기원제 / 천수만 철새 기행전 / 국화 전시회

■ 서천군

마량포 해돋이축제 / 동백꽃 주꾸미축제 / 전어축제 / 서천 단감축제

■ 홍성군

남당리 대하축제 / 광천도굴새우젓-김축제

■ 태안군

황도봉기 풍어제 / 태안군 수산물 대 축제 및 전국바다낚시대회 / 태안 낭금갯벌 자염축제 / 몽산포 모래조각경연대회 / 태안 대하축제

서 충청도 서해안의 여러 관광 매력 중 넓은 범위에서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관광과 어촌관광으로의 방향제시와 더불어 세부적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매력 증진의 방안 그리고 생태관광상품개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하고자 한다.

1) 생태관광

생태관광을 언급한 기존의 연구들은 관광대상, 관광목적 및 관광활동, 관광 개발과 관리, 관광의 긍정적 효과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사항을 보이고 있다. 즉, 많은 연구들이 생태관광의 대상으로 비교적 손상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관광(nature based tourism)과 다른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였으며(Sirakaya, et. al, 1999), 뛰어난 자연지역이나 특이한 야생자원을 가진 지역의 생태계를 관찰하거나 그 지역만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Butler, 1990; Var, 1992). 실제로 이러한 관찰·체험활동은 환경교육(environmentally educated tourism)을 포함하여 환경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관광개발과 관리의 측면을 보면 생태관광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광영향을 최소화하여 생태적 지속성을 유지시키는 관리(sustainably managed)가 요구되어 진다(Sirakaya, et al., 1999; Valentine, 1991; Young, 1992). 또한 생태관광자의 관광 활동 면에서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책임감 있는 관광활동이 요구된다(Davis, 1989; Shoup, 1989; Ziffer, 1989). 마지막으로 생태관광이 자연환경 보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는 자연체험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교육적인 효과와 관광수입이 지역사회와 자연보호에 환원되는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Butler, 1990).

Ross와 Wall(1999)은 그들의 연구에서 이론과 실제간의 차이와 더불어 생태관광의 역할(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생태관광의 역할(기능)은 목적지, 관광객, 지역주민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연지역에 대한 보호, 좋은 관광경험의 제공,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원의 보전, 환경 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발과 보존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의 주체로서 지역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여행상품 분류상으로 생태관광상품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접촉하고자 하는 여행상품으로 특수소재관광상품(SIT)의 하나로 볼 수 있다. SIT는 특정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광객들이 그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행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동적 관광으로서, 관광의 질과 그 학습효과를 중요시한다(김경아, 1996).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생태관광의 정의와 구성요소, 여행상품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생태관광상품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보았다.

생태관광상품이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한 여행자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자연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대상으로 생태관광상품 운영자의 가이드 라인에 의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사되는 여행상품이다. 생태관광상품의 구성요소는 교

통수단, 숙박시설, 식사, 관광대상지역(자연, 문화), 환경교육프로그램과 환경교육을 위한 전문가이드라고 볼 수 있다.(최영희2002)

2) 해안관광자원과 어촌관광자원으로의 활용

우리국민의 해양관광 참가횟수는 1996년을 기준으로 약 7,2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지출규모도 약 2조 8,145억 원으로 국내 전체 관광시장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관광을 유형별 참가횟수를 살펴보면 비치관광이 성수기 때 4,600만 명, 해안연관형 관광활동 1,100만 명으로 나타나 성수기의 비치관광이 해양관광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8). 여가공간의 제공 측면에서 해양은 하절기에 국민에게 해수욕장을 제공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이는 새롭고 다양한 해양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추구하는 신세대 탐방객 뿐 아니라 녹색 관광, 생태관광 등 친환경적 해양관광의 경험을 얻고자 하는 국민들의 새로운 관광 욕구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성수기기 약 한달 정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에 집중하는 관광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관광자원의 피해 또한 심각함을 예상할 수 있겠다.

또한 어촌도 횃집 중심의 먹거리 위주로 개발되어가고 있는데 어촌의 분위기에 맞는 전통성이 존중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과 어촌으로 탐방객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²⁾.

1960년말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더불어 프랑스가 지중해 지역을 국민관광지로 개발, 세계적인 연안관광지로 만든 것과 같이 충청도의 서해안도 잘 개발하여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이에 관한 사례로 미국의 비스케인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40만명의 탐방객이 성수기에 몰리지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야생생물관찰, 조류관찰, 자연탐방 등 생태관광프로그램과 함께 야외휴양활동으로 보트, 캠핑, 교육프로그램, 낚시, 산책, 수영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도토리자연공원에 해안경관, 다양한 해양생태계, 사구에 대한 해설, 사구의 역사, 사구동물, 사구식물, 양서류, 해안의 대규모 해식동, 사구의 농업 등 다양한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3>

	, . , ,)	, , . , , (
	((
	, 가	가	
		, ,	
	가		
	- 가		
		, 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3) 서해안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매력 증진방안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국민 여가 활동 성향이 자연관찰, 문화/역사 체험 여행, 농장체험, 자연체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환경의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환경교육을 담고 있는 생태관광의 이념적 틀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서해안의 환경자원의 특성이 이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생태관광상품은 이전의 다른 관광상품이 개발을 통해 편리성을 추구해 온 것과는 달리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활동을 제외하고는 계절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생태관광상품의 방향을 크게 휴식형과 체험형, 관찰형으로 생태관광 상품 방향을 설정하여 각각의 상품별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1) 휴식형 생태관광 상품

휴식형 생태관광상품은 생태관광의 요소 중에서 자연관광과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상품 구매대상을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선정하여 서해안의 접근성과 수심이 얇고 따뜻한 장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① 자연휴양림 탐방

휴식형 생태관광상품은 충남에 있는 자연휴양림 12개소 중 서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6개소(회리산, 명대계곡, 용봉산, 안면도, 성주, 영인산)를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생태관광상품으로, 중년층과 노년층 생태관광객을 위한 상품이다. 생태관광상품이 체험형 상품으로만 구성되어 연령층이 어린이와 청소년 계층에 한 기존의 정적인 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노년시대에 대비한 실버관광상품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방향은 자연휴양림의 특성에 맞추어 안전시설과 편안함을 주안점으로 건강과 회복에 중점을 두도록 하며, 이들 상품 구매자들에게 환경의 유산가치를 확인시켜 주도록 한다.

② 해안에서의 휴양과 보양

당진군의 난지도 해수욕장과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 보령의 무창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심이 얇고 수온이 따뜻하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상품으로 다른 해안지역의 역동적인 특성보다는 안정적이며 편안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³⁾ 상품의 운용기간은 휴식형 생태관광상품 구성이기 때문에 성수기를 피하고 10월부터 2월에 이르는 기간에 제공하며, 해안공원에 마련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중년층과 노년층의 관광객이외의 가족 관광객 유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체험형 생태관광상품

체험형 생태관광 상품은 생태관광상품 구매자의 연령과 체험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상품 구매자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개념도 적극적 보호자부터 소극적 보호자까지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시되는 생태관광상품은 스노클링(snorkeling)과 스쿠버다이빙을 포함 한다.

3) 이러한 보양 휴양 차원에서의 상품개발의 국내외 사례는 ① 보성에서는 해수탕과 녹차탕을 운영하여 매년 흑자를 내고 있기도 하고, 함평의 해수 찜질은 민간요법으로서 유명하다. ②해수온욕시설(일본 에히메현 유게쵸) : 유게쵸에서는 현재 해수온욕 시설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운동요법에 온욕시설로서 풀(Pool)을 위주로 하여 각종 욕탕, 기포 욕탕, 사우나 등이 검토되고 있고, 주민과 방문자에게 각종 요법 프로그램의 제공과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건강식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③조염(藻鹽)목욕(일본 히로시마현 가마가리쵸) : 가마가리쵸에서는 예전부터 피로회복에 이용해 온 조염목욕(해조류요 해수를 이용한 사우나 비슷한 것)을 재현하여 이것을 섬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방문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④아토피 캠프(일본 오카나와현 온나촌) : 후생성이 오키나와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토피(알레르기)성 피부염 어린이를 위한 캠프이다. 합숙형식으로 행해지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면서 해수요법을 하는 것이다. 또한 돌고래 요법으로 자폐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다.

① 갯벌체험⁴⁾

우리나라의 갯벌은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산성이 높고 세계적인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경우가 많아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환경생태자원이다. 기존의 서해안의 갯벌체험은 갯벌의 자연생성물을 중심으로 한 채취가 주로 이루어 졌으나, 이러한 갯벌체험 형태⁵⁾는 오히려 갯벌의 황폐화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서해안 갯벌체험은 교육을 중심으로 한 갯벌의 환경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정된 일부지역에서만 갯벌체험을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특정지역 선정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 하여 보면, 서해안의 일정 시설을 이용하여 갯벌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여 특정시설에 갯벌에 대한 환경교육과 자생동식물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학습장을 통하여서 일차적으로 갯벌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갯벌의 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② 포구기행

4) 충청도 서해안의 갯벌은 아산만에서 시작해 천수만을 거쳐 장항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아산만갯벌, 대호갯벌, 가로림만갯벌, 천수만갯벌, 장항갯벌로 나뉘어진다. 아산만 내에는 아산방조제, 삼교방조제로 막혀진 두 곳이 대표적인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농토로 변해버렸고 일부만 남아있다. 태안반도의 북쪽에 위치한 가로림만내에는 80km라는 비교적 넓은 갯벌이 발달돼 있는데, 굴 양식장, 조개, 특히 바지락 양식이 유명하다. 이곳은 만의 입구가 좁고 조차가 7m나 되어 조력발전소가 계획되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근처에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태안반도의 가장 서쪽 돌출부에도 소원, 소근, 안흥갯벌 등 몇몇 소규모 갯벌이 있으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천수만 안쪽에 발달했던 1백60km²의 대단위 갯벌은 80년대 초 서산 A,B지구 간척으로 인해 사라져버렸다. 비인만에서 장항부근까지 비교적 넓은 갯벌이 발달돼 있고, 유부도, 개야도 주변에도 독립된 갯벌이 분포해 있다. 충청도해안의 갯벌 면적은 총 5백km²에 달하지만 당진군 석문지구, 태안군 신진지구, 서산 A,B지구, 서산 대호간척지, 금강하구둑, 보령·남포지구 등이 간척 또는 매립되어 약 3백km²가 넘게 사라졌다. 총 면적의 60%가 이미 파괴된 셈이다.

5) 갯벌체험의 국내외사례는

①강화도 생태학습장 : 강화도 남단 갯벌은 세계자연기금(WWF)과 아시아 습지 보호협약(AWB)에 등록된 세계 주요 습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철새번식지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수도권의 생태 학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강화도의 생태학습프로그램은 강화도 남단 장화리에 위치한 ‘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련원은 1997년 장화초등학교가 폐교되자 인천교육청에서 해양수련원으로 개조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② 전라남도 함평 생태체험학교 : 생태체험학교는 함평군의 주도하에 운영되며 돌머리 해수욕장과 함평을 방문한 관광객은 모두 무료로 참가한다.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 해수욕장내 위치한 갯벌 생태체험장은 갯벌의 생성과정과 생태, 기능, 중요성 등에 대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③ 일본 후쓰(Hutsu) 市の 갯벌 조개잡이 체험 : 갯벌조개잡이 어업체험사업은 후쓰 어업협동조합의 자영사업으로 조합사업의 규칙에 의거 체험어업의 인가를 받아 1965년경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④ 일본 야쯔(Yatus)의 갯벌: 일본 나라시노시 인근 야쯔갯벌은 과거 광활한 간석지의 일부였던 장소가 1970년대에 주위가 매립되어 동경만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주택지와 도로에 둘러싸인 면적 약 40ha의 장방형의 바다이다. 야쯔갯벌은 애쯔갯벌 공원 내에 위치하며 이 공원은 야쯔갯벌의 자연을 활용한 ‘자연생태관찰공원’으로서 갯벌보전(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조성의 거점), 완충녹지(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거점), 레크레이션(야생조류와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거점), 환경학습(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거점)을 기본테마로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어촌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 2001 5.)

서해안지역에 위치한 포구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태안(안흥항, 신진항, 모항, 만대포구 등), 서산(상길포, 별천포구, 간월도), 당진, 홍성(남당리 항)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포구기행은 포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구성하고 포구마다의 특성을 살려 관광기념품을 구성해 보도록 한다. 관광객이 포구에 내릴 경우, 지역내 생태관광코스를 설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위하여서 포구에 대한 유래와 설명을 위한 해설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때는 포구별 방문을 위한 배를 제공하는 지역주민이 해설가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 옳바를 것이며, 이는 사전에 포구기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선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찰형 생태관광상품

① 철새 관찰

철새관찰은 천수만(서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기간으로 한다. 현재 관찰되는 철새는 천연 기념물인 흑고니, 큰고니, 개리, 흑기러기, 원앙, 소쩍새, 큰소쩍새, 솔부엉이, 칙부엉이, 쇠부엉이, 재두루미, 두루미, 검은머리물떼새, 흰꼬리수리 등이며 환경교육적 관광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철새관찰(Bird watching)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철새기행전 등의 형태보다는 소규모 관람객(10명 내외)을 대상으로 하여, 전문 가이드를 결합시킨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가이드가 천수만의 역사와 새에 관련된 우화를 들려주고, 관찰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천수만 접근 방법도 버스 등의 형태보다는 도보를 이용하는 방법이 철새보호와 지속적인 관광개념에 더 부합할 것이다. 철새관찰의 관광상품화 가능성은 매우 크며, 국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위하여 해설기능을 보강하고 철새 관찰 방법, 철새 관찰 도구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수적이다.

② 사구 관찰

서해안 장곡리 사구지대는 서해안에 발달한 여러 사구들 가운데 사취에 형성된 거의 유일한 사구로서 길이 약 1km미만, 폭이 200m 이상이 형성되어 있으며, 고남리 일대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 동해안에 발달하는 barrier islands형태도 천연의 방조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안 지역은 금강과 같은 대하천의 물질 공급과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북서쪽에 노출되어 있는 사구가 잘 형성되고 있으며, 장곡리 외에도 태안군의 학암포, 천리포, 만리포, 대난지도, 안면도의 서쪽의 해수욕장들을 들 수 있다.

사구관찰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품을 구성하며, 환경해설자를 확보하여, 환경교육 효과를 배가 시켜야 한다. 환경 해설자의 해설을 통하여 사구라는

자연환경에 대한 친숙함을 증대시키고, 서해안 자연자원에 대한 환경보호 의식을 확대시킴으로서 잠재적인 서해안 생태관광수요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③ 야외 관찰 수업- 들꽃 관찰

서해안에 집중 분포하는 들꽃과 소나무, 은행나무를 주요 소재로 선택하여 홍성 및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하도록 한다. 상품구성은 소규모의 주중 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참가자를 7인 이하로 구성하고 동일 지역 내에서 3개 이상의 코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식물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하며, 이 들꽃관찰은 신청이 있을 경우, 초등학교의 학급별 야외 식물관찰 수업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방법도 고려야 볼 만 하며, 서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들꽃과 소나무, 은행나무 등의 식물자원을 중심으로 하여, 야외 관찰 수업을 떠나기 전에 식물 슬라이드 상영을 통한 교실 수업도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를 통한 연계 상품으로는 우리 꽃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 아래 국내 자생식물을 촬영품, 서해안 식물학습을 주제로 한 학습노트를 상품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상품으로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연보전에 대한 인식의 확대이다. 이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이외의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을 직접 경험하게 하거나 간단한 학습장과 다양한 전시관 및 전시물 설치하여 시각적·청각적으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4) 서해안 생태관광 상품 개발의 문제점

자연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의 상품개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첫째, 기존의 관광개발과의 마찰을 줄여야하고 둘째, 국내 대부분의 생태관광상품의 독창성이 부족하고, 전문적 환경해설가의 부족으로 인한 환경해설 기능의 빈약 등이 현실이지만 서해안 나름의 생태관광상품에 대한 프로그램 또한 빈약한 것이다. 그러나 서해안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연자원이 풍부하므로 국내외의 많은 사례를 검토한후 독창적으로 활용가능성은 많다. 이때 또한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주민과의 관계설정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의 협조가 있을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의 생태관광상품 주력 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이 요구된다.

IV. 결론

자연환경을 여행하는 것은 종교적/심미적 경험, 평온함, 고독, 자연유희가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 또한 소음과 혼잡과 같은 일상환경의 모든 현상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주어진 자연환경의 질에 대한 기대에 끌리는 것이다.

자연으로부터의 도피가 전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의 충동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야생자연으로의 여행은 도피충동과 관련된다. 이러한 도피충동은 거주지역의 규모와 도피욕구의 강도는 서로 강한 관계가 있음이 발견된다.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환경의식이 점차 강화 향상되면서 관광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또한 자연환경의 경험 욕구를 강화시키고 있다.(박석희,2000)

이러한 면에서 충청도의 서해안은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서울 경기권의 시장이 확보 될 수 있고 환경의식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있다.

이 때의 개발은 당연히 보존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자연자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보존에 의하여 형성 아름다운 경관, 희귀동식물의 서식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존이 없으면 그 개발수요는 당연히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 강미희(2002, 8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여가문화로서의 생태관광. 「발표논문」
UNEP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여가문화로서의 생태관광포럼.UNEP 한국위원회,
서울.
- 김경아(1996). 국외 여행업체의 생태관광상품 기획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석희(2000), 「관광과 공간변형」, 일신사. 239-260
- 충청남도(2001). 충남통계연보
- 최영희(2002). 「공급자 측면에서의 생태관광과 생태관광상품 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2001). 사회통계조사.
- 한국공원휴양학회(2002).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립공원의 역할강화방안 연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8), 「국내 해양관광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2), 「해상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Butler, R. W.(1990). Alternative tourism: Pious hope or trojan hors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8(3): 40-45.
- Davis, W. A.(1989). Tourists show their concern for world's ecology. Boston Globe, Sunday, November, 26: A 21 and 35-36. Quoted in Backman, D.F., B.A. Wight, and S.J.
- Ross, S. & Wall, G.(1999). Ecotourism: Towards congrue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ourism Management, 20(1): 123-132.
- Shoup, M.(1989). Ecotourism: Seeing the world and endeavoring to save it. Philadelphia Inquirer. Sunday, November, 12: R 3. Quoted in Backman, D.F., B.A. Wight and S.J.
- Sirakaya, E., Sasidharan, V., & Sonmez, S.(1999). Redefining ecotourism: The need for a supply-side view. Journal of Travel Research, 38(November): 168-172.
- Valentine, P. S.(1993). Ecotourism and nature conservation: A definition with some recent developments in micronesia. Tourism Management, 14: 107-115.
- Var, T.(1992). 선진 21세기를 향한 수도권 관광개발 방향의 모색. 수도권 관광개발관련 국제 심포지움 자료. 교통개발 연구원: 59.
- Ziffer, K.(1989). Ecotourism: The uneasy alliance. Conservation International, Fall. Washington, D.C. Emst & Young.